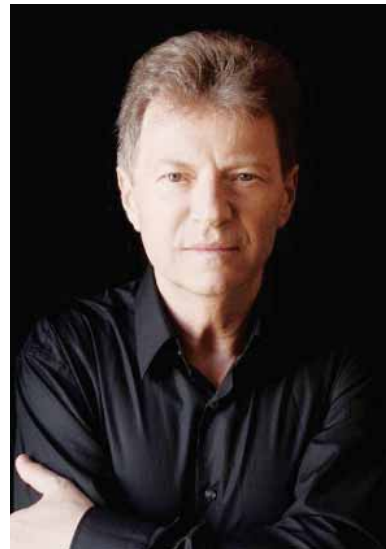


KBS교향악단과 떠나는 3일간의 음악여행

9월 1~3일 제1회 여수음악제

예율마루·이순신 광장 등서 공연
지휘 요엘레비·음악감독 김남윤
신영옥·문지영·윤정난 등 출연

5월 오디션 선발 청소년 26명
12주 음악학교 졸업 합주무대도



요엘레비



신영옥



문지영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제1회 여수 음악제'가 오는 9월1일부터 3일간 여수 GS칼텍스 예율마루(이하 예율마루)에서 열린다.

여수상공회의소와 (재)KBS교향악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음악제에서는 일상을 벗어나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치유하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공연의 지휘는 현재 KBS교향악단의 음악감독인 요엘레비가 맡았다. 그는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등에서 음악감독을 역임했으며 프랑스, 벨기에, 이스라엘 등에서 활동 중이다.

교육부 음악감독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이 참여했다. 예술인이자 교육자로 국내 예술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그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스승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은 1일 오프닝콘서트를 시작으로 2일 스페셜콘서트, 3일 피날레 콘서트로 구성됐다.

1일 오후 7시30분에는 예율마루 대극장에서 3일간의 아름다운 음악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콘서트가 열린다.

개막 연주자는 여수출신 피아니스트 문지

영, 소프라노 윤정난, 테너 김성현이 KBS교향악단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공연은 차이코프스키의 '슬라브 행진곡'을 시작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다단조, 작품18', 차이코프스키의 오페라 '에브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 레하르의 오페라 '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가 펼쳐진다.

또 조두남의 '벚꽃노래', 김동진 '가고파', 레하르의 오페라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가 이어진다.

2일 오후 2시 GS칼텍스 쌍봉사택 클럽 하우스, 오후 3시 여수엑스포 디지털갤러리(EDG), 오후 8시 이순신광장에서는 스페셜콘서트가 마련됐다.

피날레콘서트는 3일 오후 5시 예율마루 대극장에서 열린다. 3일간의 대미를 장식하는 피날레 공연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사

랑하는 소프라노 신영옥이 등장한다.

이번 공연은 요엘레비의 지휘아래 소프라노 신영옥, 플루티스트 안명주 등이 무대를 채운다.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서곡으로 시작해 토스티의 '세레나데',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중 '울게 하소서', 아르디티의 '입맞춤'이 이어진다. 보네의 '카르멘 환타지', 김성태의 '동심초', 카탈라니의 오페라 '리탈리'중 '난 멀리 떠나야 하네',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제9번' 마단조, 작품 95 '신세계로부터'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음악제는 지난 5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26명의 청소년이 12주간 음악학교 과정을 통해 KBS교향악단과 공동연습 등을 하며 합주 무대를 갖는 등 여수지역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우수 학생들은 3일 폐막 공연에서 KBS교향악단과 협연할 기회를 갖는다.

예매는 GS칼텍스 예율마루 홈페이지(www.yeulmaru.org)와 인터파크 홈페이지(ticket.interpark.com)에서 가능하며 7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 청소년(만7세~24세) 전석 5000원. 2일 스페셜 콘서트는 전 공연 무료. 문의 061-641-0040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KBS교향악단

'공간 속의 이야기'...주미희 개인전

31일까지
LH
휴랑갤러리



'공간 속의 이야기'

주미희 작가의 작업 소재는 다양한 색깔의 실이다. 작가는 색깔의 실이 기쁨, 사랑, 미움, 희망, 고통 등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녀의 작품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소재는 가는 철사를 구부려 만든 사람 모양의 형상이다. 슬한 색깔은 작은 철사 인형을 촘촘히 감싸고 있다.

주미희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1층 LH 휴랑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 주제는 '공간 속의 이야기(Story in space)'다. 작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에 주목한다. 물리적 공간과 심

리적 공간을 아우르는 그 곳에서 사람들은 부대끼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고 희망을 얻는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실태라가 영커트 복잡한 화폭 속에 다양한 철사 인물 군상을 배치했다. 각기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진 수백명의 인물 군상은 저마다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듯하다.

조선훈 조소과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주씨는 프랑스 파리 8대학 조형예술과 석사를 마쳤다. 전국조각가협회, 광주전업작가회, 남도조각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360-31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작가전 '청년의 책' 작가 릴레이 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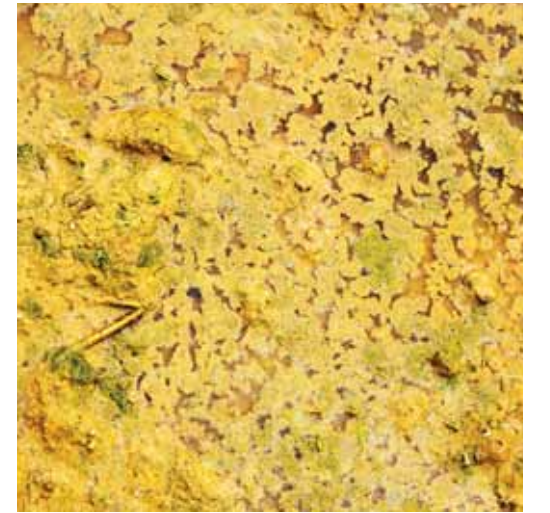
문선희·김명우...내일 광주시립사진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이 주최하는 청년사진작가전 '청년의 책' 작가 릴레이 토크 두번째 행사가 9일 오후 3시 광주시립사진전시관에서 열린다.

1차 토크 참가자인 인춘교·조현택 작가에 이어 이번엔 참여하는 작가는 문선희·김명우씨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넷워크 서비스를 소재로 한 'Perfect World'를 출품했다. 문 작가는 '물다(Burial)' 시리즈를 통해 2011년부터 구제역 확산 해결방안으로 진행중인 가축 살처분에 대한 인간의 양심을 묻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두 사람은 이번 토크에서 작품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작업스타일, 작업 동기,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 등 다양한 이야



문선희 작

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박세희·이세현 작가를 포함, 모두 6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2-613-71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비엔날레와 함께 차를'...오늘 강운 작가 작업실 찾아 갑니다

비엔날레재단 매달 한차례 오픈 스튜디오 방문 프로젝트 시작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비엔날레와 함께 차를'은 (재)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진행하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행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이었다면 올해는 지역 작가와의 소통을 강화, 지역 작가 오픈 스튜디오 방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한달에 한번 재단 직원들과 동료 화가들이 선

정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 작업 세계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기획으로 첫 행사는 8일 강운 작가의 작업실에서 열린다.

제3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였던 강운 작가는 캔버스에 구름을 소재로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작가만의 동양적인 사유의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 자리한 강 작가의 작업실 탐방에는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과 전시부 직원, 지역 작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비엔날레와 함께 차를'은 지난해 상인과 주민, 교사 대상으로 5차례 개최됐으며 300여 명이 함께했다. 올해에는 두차례 광주비엔날레 아티스트 DB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문의 062-608-43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강운 작가

키농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7년 8월호

7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어촌의 여름을 즐긴다

- 바지락 맛조개 갯벌 체험, 태안 병술만 마을
- 달빛 아래 흰 상사화과 해변 산책, 위도 벌금마을
- 옛 당집과 신기한 해녀 체험, 울산 주전마을

보성에서의 여름휴가 활력 충전 100%

맛 맛 역사 자연 두루 갖춘 가족여행지로 각광

노홍준의 꿈의 여행

인도양에 떠있는 천혜의 섬나라, 세이셸

문화 축제

브런치 콘서트, 달콤한 인기

"음악, 나누면 더 행복하죠" 오디오 마니아 건축사 최경양 씨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송정동에 '문화와 정돈' 퍼트리라는 협동조합 이공 트레이드를 터닝 포인트 삼은 KIA 1번 타자 이명기

60년 소리 인생 판소리 명창 안숙선

"소리 공부는 끝없어 매일 수련"

대한민국 식물명인회

대나무의 기 담긴 천년 명주의 맥 잇고, 세계의 술과 어깨 나란히

추성주 명인 양대수

마성의 1인 영상미디어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들어"

음식과 문화

목공예·떡살 전문가 이상국씨가 고안한 새로운 원형 떡살

동네 책방에 빠지다

책방별곡(2)

통영의 예술과 문화 가득 찬 '봄날의 책방'

트렌드 따라잡기

정문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재향과 선택

현대 미술계의 두 여성 스타

바버라 크루거 Vs. 신디 셔먼

베트남의 대중문화 X파일상

김태호·나영석, 진행형 레전드 예능PD!

드론으로 본 세상

더위 가르며 바람 질주

국가어항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광·교통 중심 거점 어항

여수 울산항

남도 문화

친새, 환경단체 탁치가 사는 생명의 청정갯벌